우봉석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전공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3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경북 칠곡에서 북삼제일교회를 개척하여 20년째 섬기고 있다.

논두렁에서 눈물도 흘렸지만 춤도 추었다

예수님은 큰 무리나 군중보다 12명의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그리고 초라하고 가난했던 어부와 세리들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세계를 바꾸는 제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은 사람을 남기는 것임을 친히 보여 주셨다. 안개처럼 삽시간에 사라지는 사람의 칭찬이 아닌, 예수님처럼 사람을 키우고 비전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소망하는 한 교회를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북삼제일교회(담임 우봉석 목사)는 경북 칠곡 면소재지에 속한 농촌 교회로서 19년 전에 천막 교회로 시작하여 현재는 칠곡 지역에서 제자훈련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목숨을 걸고 사역할 것을 결심하다

시골 교회 목회자였던 아버지를 둔 우봉석 목사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멘토로 여겼을 정도로 존경했으며, 성장한 후에는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신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교회 장로들과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우 목사는 이러한 교회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 목회를 하면 반드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총신대 신대원 강도사 시절이었던 1993년 1월에 칠곡 북삼제일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실천됐다.

우 목사는 처음 목회할 당시 북삼제일교회를 향한 자신의 속마음을 이처럼 털어놓았다.

"사실 이곳에 와서 잠시 교회를 섬기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장년이 8명, 학생 7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설교할 목회자가 없어서 제가 잠시 설교를 해주러 왔었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심방할 곳도 없고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가서 전도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전세금도 다 빼 가셔서 교회 재정도 바닥이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아주 낙후되어 있는 도시로 성도의 반 이상이 참외농장을 하는, 전형적인 면소재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목사 안수만 받으면 경기도 분당으로 가려고 날짜만 계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름대로 목회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우봉석 목사는 1996년 3월에 29기 CAL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우 목사는 세미나 첫 시간 '광인론'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아 혼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앞으로 목숨 걸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1시간 동안 수양관 본당에서 기도했다. 광인론을 잊지 못한 그는 지금까지 제자훈련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었다고 한다.

"CAL세미나에서 내가 왜 목회를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목회의 분명한 부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5명의 교인으로 출발한 그는 논 2백 평을 빌려 천막 교회를 세웠다. 여름에는 천막 안 온도가 50도를 웃돌아서 7명의

훈련생들을 데리고 금오산 바위 위에서 훈련하고, 아이들은 풀밭에 풀어놓고 복음 제시와 양육을 동시에 병행했다. 신앙이 어린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 목사는 "제자훈련을 하기에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묵묵히, 열심히 제자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쁨은 두 배가 된다

현재 북삼제일교회는 55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2011년 2월 현재 제자훈련 현황은 여자 14기, 남자 7기가 수료하였으며, 사역훈련은 5기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지금까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수료한 이들은 약 270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 숫자는 앞에서 언급한 전체 교인의 수의 반 정도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하지만 현재 훈련을 받은 사람의 3분의 2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교회를 떠난 상황이다.

북삼제일교회처럼 성도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제자훈련에 집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열심히 훈련을 시켜놓았는데 그들이 줄기차게 교회를 세워가기는커녕 교회를 떠나는 현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목회자가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훈련을 받았지만 제자훈련 받은 모든 훈련생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은 구미공단지역으로 지역 구성원들이 30~40대와 고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토박이로서 대부분 농사일을 하고, 30~40대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수도권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훈련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대도시로 이동하였습니다."

1년 동안 목자의 심정으로 양육한 성도들이 이제 뭔가 사역을 맡기고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대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니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우 목사는 이렇게 고백한다.

"솔직히 처음에 제자훈련 받았던 성도들이 대도시로 유입되어 나가자 허탈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싶었지요.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목회의 중요한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는데 이렇다니, 과연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거시적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떠날 때 각 지역에서 제자훈련을 하는 건강한 교회들을 추천해주고,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는 '선교사' 라는 기분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제는 떠나는 훈련생을 막지 않습니다."

새가족부를 담당하는 김현정 전도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목사님은 눈물이 너무 많으세요. 자신이 열정을 다해 훈련시킨 집사가 직장 문제로 교회를 떠날 때면 어김없이 논밭에 차를 세워두고 논두렁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의 그 마음을 말이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가 꿈꾸는 교회의 비전을 성도들이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우 목사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이다.

"지금까지의 목회 생활을 돌이켜보면 정말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제는 제가 꿈꾸는 제자훈련에 대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이 아닐까요?"

처음 금오산 바위에서 했던 제자훈련 가운데 있었던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복음 때문에 웃고 울었습니다.
그때 제자반 훈련생들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복음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도 광인(狂人)이 될 수 있다

옥한흠 목사는 CAL세미나 '광인론' 강의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에게 이렇게 놀라운 잠재력과 은사, 달란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더라면 저의 목회는 죽은 목회이며, 주님이 손해 보는 목회였을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훈련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옥한흠 목사가 제자훈련에 미친 것처럼 우봉석 목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제자훈련에 생명을 걸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한 영혼의 변화' 였다.

CAL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도지를 들고 인근에 위치한 삼주아파트 앞 느티나무 밑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다. 전도를 하다가 유머가 풍부한 하태숙 아주머니(현재 하태숙 전도사)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 목사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태숙이라는 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자매가 '교회가면 떡 줍니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예! 생명의 떡을 줍니다' 라고 말했더니 정말로 주일에 그 자매가 떡을 먹으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자매를 앞에 두고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엑기스를 담아서 말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준비된 떡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매는 아파트 주민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5개 미장원을 점찍어 놓고, 자기와 비슷한 자매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매가 1년 동안 전도한 인원이 28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매가 전도한 성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시작한 1기 제자훈련은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우 목사와 함께했던 훈련생들은 환경에 상관없이 열정을 다해 제자훈련에 임했다. 우 목사는 그 당시 제자훈련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처음 금오산 바위에서 했던 제자훈련 가운데 임했던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복음 때문에 웃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반 훈련생들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복음의 역사가 불붙듯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적은 숫자였지만 3년이 못되어서 100명이 늘어나고 80평짜리 교회를 건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배우다

누구나 빠른 결과물을 원한다. 하지만 제자훈련의 결과물은 빨리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는 변화시키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임을 믿고 내어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젠가 우리 옆에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교회 안에 제자훈련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 목사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자 급하게 추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속성 과정을 도입하였다. 속성 과정은 1년의 제자훈련 커리큘럼으로 진행해오던 것을 별도로 교재를 편집해서 1년에 3차례 진행했다. 속성 과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당시에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데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수준에 맞추어 교재의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최소한의 복음적인 내용만을 다루었습니다."

우 목사는 제자훈련의 속성 과정을 3기부터 6기까지 진행했다. 속성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전에 했던 것만큼 헌신된 제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 목사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목회에 중요한 교훈을 경험했다.

"속성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생들에게 훈련을 준비할 수 있는 양육 단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훈련생의 영적 토양, 기본적인 복음의 지식에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속성 과정을 거치니까 열매가 원활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물들이 자라날 때 식물에 따라서 비료의 양의 차이를 다르게 하는데, 비료를 과하게 했을 때 오히려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토양, 식물의 내용, 영양분인 비료의 공급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 목사는 서둘러 진행하려던 제자훈련을 잠시 멈추고 양육시스템을 만들었다. 새가족반(5주)과 확신반(5주-구원의 확신을 다루는 과정)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양육의 과정을 받게 한 뒤 소그룹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소그룹의 분위기를 익히게 했다. 그리고 그 후 소그룹 리더의 추천을 받아서 제자훈련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제자훈련, 우리 모두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제자훈련 목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화와 성숙의 열매는 훈련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봉석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목회자 자신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생겼으며,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한다.

1기로 사역훈련을 받은 채영숙 집사는 '북삼제일교회는 자신에게 새로운 힘과 내일의 도전을 주었던 곳'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에게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북삼제일교회에 등록하기 전까지 저는 그저 제 아이 하나 감당하기도 벅찬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지요. 그리고 어쩌면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늘 지쳐있었고 주눅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역훈련을 갓 마친 저를 목사님께서 총무로 임명을 해주셨고, 저는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말씀훈련을 통하여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게도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나 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제게 엄청난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로 인하여 교회 일에는 매사에 소극적이던 제게 억지로(?) 소그룹 사역을 맡겨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격려를 주시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감사를 곱빼기로 드립니다. 북삼제일교회는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훈련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받는 훈련은 신병훈련소에서 받는 훈련처럼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훈련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누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답니다."

현재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는 김순섭 집사는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을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온 동료 훈련생들은 삶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에 참여한 한 자매는 시어머니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참여한 제자훈련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삶 속의 은혜를 나누기는커녕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제대로 알지 못해, 점심도 안 먹고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기 일쑤였습니다. 총무로 섬기고 있던 저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많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제자훈련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녀를 달래고 위로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생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매를 새벽기도로 이끌어 함께 기도하던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믿기 시작하면서 제자훈련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제 일보다 더 기뻤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 리더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영혼의 변화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로 사역하면서 그녀는 또 다른 영혼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부쩍 성장해가는 지체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는 김 집사는 그 보람을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 교회에서 받는 훈련은
신병훈련소에서 받는 훈련처럼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훈련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누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볍게 감당할 수 있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면 그 변화가 점점 퍼져 나갑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이 리더 사역을 통해 제자훈련에서 느꼈던 그 기쁨을 매일 느끼는 중입니다."

제자훈련의 열매에 대해서 유성재 장로는 이와 같이 고백했다.

"제자훈련은 제게 있어서 신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오던 저를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었고,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됐습니다."

제자훈련 12기 출신인 김현정 전도사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한다.

"저는 오랜 시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간직하며 살아왔지만 이 비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고도 무력하게 진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돌파구를 열어준 것은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종교생활이 아닌 제대로 된 믿음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법을 배웠고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내가 만나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들을 사랑하며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영혼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게 되는 게 너무 귀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결단할 때마다 저는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저에게 주신 비전을 좀 더 쓸모 있게 하기 위해 신학교에 갈 것을 결심했고, 올해부터 신대원에 입학해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미전도 종족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훈련을 해서, 바로 그 종족의 사람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자체적으로 자기 종족을 온전히 복음화하는 능력을 갖추는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는 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땅 끝에서 그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우 목사 자신은 평신도들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자신은 정말 행복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한다.

"제자훈련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자훈련은 저를 위한 제자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복음 앞에 무너져서 눈물과 감격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기쁨을 참지 못해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논두렁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만큼 제자훈련을 통해 한 영혼의 변화가 북삼제일교회 제자훈련 공동체, 가정 공동체까지 변화시키고 있음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우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복음 앞에 무너져서 눈물과 감격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기쁨을 참지 못해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논두렁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한다.

고기 대신 사람을 낚았다

북삼제일교회의 또 하나의 변화는 젊은 세대와 남성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 목사는 지방 교회의 취약한 점으로 남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 목사는 남성수양회와 스포츠 선교회를 만들어 남성들이 쉽게 교회에 찾아올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었다.

스포츠선교회는 족구, 축구, 등산, 탁구 모임 등을 통해 수시로 남성들이 함께 운동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 남성수양회는 1박 2일로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1년에 2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수양회 가운데 신앙의 문제, 사회 속에서 겪는 삶의 문제 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는 북삼제일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제일 기억에 남는 남성 수양회에 대해서 우 목사는 이렇게 회고한다.

"교회가 동해에서 가까우니까 한 번은 포항의 문무대왕릉 앞바다에서 밤낚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훈련을 하던 모든 형제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가 청정지역이라서 고기가 안 사는 지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낚싯대만 바다에 들려놓고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제자훈련이고, 교회고 다 싫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 누님, 형님도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제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집사가 이런 아픔을 이야기하자 함께 듣고 있던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그 형제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건네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들을 그 형제들이 다 하더라고요. 급기야는 백사장으로 가서 서로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절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총무로 섬기는 안남배 집사는 남성수양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다.

"저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에 불타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새벽 두세 시까지 진행되는 이 모임 시간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못 다한 이야기들을 콧등 찡하게 나누었습니다. 소박한 하룻밤 모임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붙잡힘과 은혜, 섭리, 긍휼하심을 간접적으로 맛보았습니다."

현재 안 집사는 교회에서 불방망이로 통한다. 불방망이는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도등이다. 안 집사는 매 주일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불방망이를 들고 교통봉사를 시작한다. 그가 봉사를 시작한지 벌써 1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안 집사는 "제 자신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된 중심에는 제자훈련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북삼제일교회에 와서 제자훈련을 받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암 선고를 받고 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암 투병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갑작스럽게 병이 악화되어서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임종예배를 드렸는데, 임종예배를 드릴 때 아내가 춤을 추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천국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딸 하영이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까지 매일 학교 수업을 마

4복음서와 서신서를 읽는 중에 그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성경을 보는데 모든 것이 제자훈련 이야기이고, 가장 목회다운 목회가 제자훈련이고, 성경이 말하는 목회는 제자훈련이구나"라는 생각이 었다.

치고 저녁 늦게 돌아올 때면 어김없이 교회 기도실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훈련의 유혹, 분명히 찾아온다

제자훈련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습관화되기 쉽다. 제자훈련 교재라든가 방법론, 이 모든 것이 손에 익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제자훈련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는 영혼 사랑도 덜하게 된다. 그래서 제자훈련 인도자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우봉석 목사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동일하게 매너리즘을 경험했다.

"19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 모든 부분이 타성에 젖기 쉬웠습니다. 제자훈련이 쉽게 느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영적 침체, 의욕 상실 등으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제자훈련 테크닉을 의지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교재를 사용합니다. 기존에 썼던 교재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교재들을 가지고 예습하고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게 되면 부교역자에게 제자훈련을 넘기고 사역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부교역자와 함께하더라도 제자반을 한 반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을 알게 되며, 목회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 목사는 "19년 동안 제자훈련 해오면서 한 번도 유혹이 없었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초기에는 가시적으로 성장이 보였지만 10기쯤 넘어서니까 몇 년 동안 정체된 분위기가 이어졌고, 이러한 공백 기간 중에 여러 다른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보기도 했다. 우 목사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목회의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제자훈련만한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양적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에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 목사는 이러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의 열쇠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노회장까지 거치신 연세 지긋한 한 목사가 북삼제일교회에 출석하겠다며 찾아왔다고 한다. 그는 현재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는 분의 장인어른이셨다. 그분은 모든 예배 때마다 항상 제일 앞좌석에서 우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 우 목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자.

"목사님은 매일 앞좌석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중간에 자신의 마음과 부합하지 않는 말씀을 하면 헛기침을 세게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몇 번 반복이 되니 설교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오후예배에 그분께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교인들 중에 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깊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맥을 어찌나 정확하게 짚으시는지 그 후에 그분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따로 모시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젊은 목회자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제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목사님은 성경을 몇 번 읽으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분 대답이 정독만 120독 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부터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활자가 큰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때에 따라서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1년에 10독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50독을 목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우 목사는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 시기에 성경을 읽음으로써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금 부흥에 점화를 하게 되었고, 막 쪄낸 찐빵처럼 다시금 제자훈련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후 4복음서와 서신서를 읽는 중에 그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성경을 보는데 모든 것이 제자훈련 이야기이고, 가장 목회다운 목회가 제자훈련이고, 성경이 말하는 목회는 제자훈련이구나"라는 생각이었다.

현실의 한계를 딛고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라

우봉석 목사는 북삼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한계를 보면서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우 목사가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제자훈련의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순간순간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 현장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는 훈련생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봄으로써 말이지요."

북삼제일교회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 목사는 소박한 비전을 갖고 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에 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2,500평 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중소도시 교회들의 제자훈련 롤 모델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늘 가지고 다니는 수첩 한 쪽에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고사성어를 적어놓았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목회자 역시 평신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본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 목회자들부터 줄탁동시(啐啄同時) 하도록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19년 동안 제자훈련을 통해서 체득한 노하우들을 함께 나누며 개척 교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목회가 힘들다고 말한다. 물론 그 한계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북삼제일교회와 우봉석 목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목회의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는 우 목사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현실 앞에 있는 한계가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아름다운 열매들임을 기억하길 소망한다.

〈조충현 강도사〉